

강진군, 코레일과 지역관광 활성화 위해 손잡았다

서울용산역·광주송정역과 업무협약 체결 철도여행 상품 개발해 상생발전 모색키로

강진군과 코레일(KORAIL)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강진군은 지난 11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코레일(KORAIL) 서울 용산역(역장 임종현), 광주송정역(역장 전삼수)과 '코로나 19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푸소(FU-SO)체험 등 농촌 생활 관광을 선도하며 감성여행 1번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강진군이 코레일과 함께 철도여행 상품을 개발해 상생

발전을 모색하고, 위드 코로나시대에 지역관광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를 이루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강진군과 코레일은 철도여행 상품 운용시 교통비 및 숙박비를 지원하는 한편, 철도 여행객에 대해서도 문화관광해설사, 관광기념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레일뉴스, 전국 주요 역과 여행 센터를 활용해 강진군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활동도 함께하기로 했다. 강진군은 최근 관광 트렌드가 대구

포 단체관광에서 가족, 친구, 지인 등 소수 개별 관광으로 빠르게 변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군은 지난해 약 3,700여 명의 민자 유치를 통해 오는 2024년까지 가우도 일대에 리조트 호텔과 풀빌라, 해상 케이בל카 등의 체류형 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이번 협약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강진군 지역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강진군과 코레일이 각자의 강점을 활용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는 관



지난 11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군과 코레일이 코로나 19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광 상품을 개발 및 활용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의 위기를 극복하 고 보다 발전된 관광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진도군, 올해 강소농 신규 교육생 19일까지 모집

진도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경영체 소득 향상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2021년 강소농 교육생'을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강소농은 작은 경영규모지만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토대로 끊임없는 역량개발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통해 자율적인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농업경영체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463명을 육성해 왔으며, 올해는 20~30명의 신규 강소농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농업인은 경영 개선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경영진단,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농가경영 설계화 등을 위한 교육 지원을 받게 된다. 모집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자율

농업경영체로 경영개선 실천 의지가 있는 중소규모 농업인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진도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 농업기술센터로 방문, 우편, 팩스,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팀(061-540-6114), 진도=조상용기자

완도 전복, 다양한 판촉 행사 연다

TV 방송·유튜브 등 집중 홍보...완도군이수 소비품 할인쿠폰 제공

완도군에서는 전복 생산량 증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연중 전복 소비촉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4~5월 전복 홍수 출하 시기에 좋은 품질임에도 불구하고 소비 부진과 대량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어업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신우철 군수는 지난 10일 노화읍과 보길면을 방문해 홍수 출하 시기에 맞춰 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소비촉진 대책을 공유하고 전복 양식 청년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전복 소비촉진 대책으로 봄맞이 특별전(4월), 가정의 달 특별전(5월), 여름 맞이 이벤트(6월), 복날 특별

전(7~8월), 추석 기획전(9월), 연말 이벤트(11~12월), TV 홈쇼핑 판매(연중)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4~5월에는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맞게 TV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 온라인 쇼핑물 할인 행사, 유튜브 라이브 판매 등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SBS 맛남의 광장을 통해 다시마 재고량이 모두 판매되면서, 올해도 전복 편을 제작 지원하여 4~5월에 방송될 예정이다. TV 프로그램 및 유튜브 등 방송 일정에 맞춰 군 대표 온라인 쇼핑물인 '완도군이수'에서는 전복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대형 온라인 쇼핑물인마켓컬리와는 3월 말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수산물 풀드체인 플랫폼 구축으로 향후 전복 대량 판매도 준비 중이다. 완도=이민혁기자

장흥군, 전통마을숲 조성으로 '숲의 가치 찾기' 나선다

장흥군은 올해 숲 문화의 새로운 화두인 '숲의 가치 찾기'의 일환으로 관산읍 삼산리 마을 숲을 대상으로 전통마을숲 복원에 나섰다. 전통마을숲은 마을의 지역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주민들이 마을에 조성해 온 숲으로, 이른바 '함께 살기 위한 숲'이었다. 전통마을숲은 마을 주민들이 모임을 가지고, 휴식을 취하고, 땀감을 얻고, 바람을 막고, 기운을 얻는 또 다른 삶의 공간이었다. 장흥군은 숲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숲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동향에 따라 훼손·소멸 등으로 방치된 마을숲을 복원하여 숲의 생태를 회복시키기 위해 나섰다. 이번에 전통마을숲 복원 대상으로 선정된 관산읍 삼산리 마을 숲은 푸른



빛이 흐르는 동백나무와 붉은빛이 감도는 웅장한 크기의 소나무가 장관을 이루어 산림 문화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정준순 장흥군수는 "이번 복원 사업을 통해 기존의 동백과 소나무를 정비하고, 숲길을 조성하여 관내의 아름다

운 산림문화 자산을 회복시켜 나갈 전망이다"며 "앞으로도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고 복원이 필요한 마을 숲을 발굴하여 산림문화자산을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흥=김도영기자



해남군 "랜선축제로 매화꽃 즐기세요"

코로나로 인해 봄 날들이 어려워진 올 봄, 땅끝매화축제에서 남도에 찾아온 꽃소식을 온라인으로 전하고 있다. 해남군은 13~14일 국내최대 매화단지인 보해매실농원에서 땅끝매화랜선축제를 개최했다. 코로나로 인해 농민 출입이 차단된 가운데 모든 프로그램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비대면으로 운영, 해남군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중계됐다.

국내 최대 보해매실농원 이틀간 매화랜선축제

13일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연주 뽀빠기 대회'가 열린다. 만개한 매화꽃을 배경으로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 등 악기 연주가 이어졌다. 14일에는 '랜선 봄 소풍가기'를 주제로 매화나무 아래 피크닉 존을 설치하고 캠핑도코소, 랜선요리경합, 요가따라하기 등 비대면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해남군민광장에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 축제 프로그램을 중계함으로써 직접 축제장을 찾지 못하는 지역민들의 아쉬움을 달랠다. 명현관 군수는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답답한 마음, 온라인으로나마 힐링할 수 있도록 랜선 축제를 개최하게 됐다"며 "직접 축제장을 찾지는 못하지만 봄의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영상과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으니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